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스타트… 효과는 "글쎄요"

〈30일 시행〉

실명확인 거친 거래은행 가상계좌만 가능
자금세탁방지 영향, 계좌 개설 까다로워

신규투자자 '코린이' 진입 당분간 힘들듯
"가상화폐 양성화, 정부 뜻과 달라" 반발

◀30일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가상화폐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빗썸거래소에서 고객들이 상담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금융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 시행한다. 뜨겁게 달구워졌던 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지만, 그 효과를 두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단 30일부터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새 가상계좌로 바꾸어야 입출금이 가능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존 거래자 중 거래실명제 이후 거래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23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걸림돌이다. 시중은행들이 계좌 개설에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서류를 내야하는데 현재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즉 가상화폐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계좌 개설 시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및 학생들은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

일명 '코린이(비트코인+어린이)'라 불리는 신규투자자 진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단 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고객 계좌 개설부터 처리한 뒤에 신규투자자의 계좌 개설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은행들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눈치보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역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규계좌 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당초 '가상화폐 시장 양성화'를 내세웠던 정부의 거래실명제 도입 취지와 다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근거 확보를 통한 정부의 가상화폐 통제권 행사라는 설명과 달리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당분간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9일

코스피지수	2598.19	▲	+23.43
코스닥지수	927.05	▲	+13.93
日 닛케이 지수	2만3629.34	▼	-2.54
中 상하이 종합	3523.00	▼	-35.1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81	▲	+0.059
환율 (원 · 달러)	1065.6	▲	+1.7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6324.32	▼	-102.50

오늘의 얼굴

배해동 회장, 바이오 벤처 에이투젠 인수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사진)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바이오 벤처 기업인 에이투젠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토니모리는 에이투젠의 주식 20만700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에이투젠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4만3300주를 추가 취득, 총 34만4000주(지분율 80%)를 취득했다. 에이투젠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전문연구개발업체로 화장품 원료 개발에 투자해 향후 토니모리의 더마 화장품 등 전문적인 제품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배 회장은 "개인 맞춤형·예방형 건강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사업으로의 확장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 TALK TALK

● **"반도체 착시에 안주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처지에 놓일 것"**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29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원화강세의 파장과 대응방향' 긴급좌담회에서)

● **"경제협력 채널 복원 및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계기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월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대해 설명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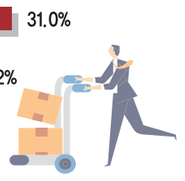
● **"주52시간 근무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하고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데이터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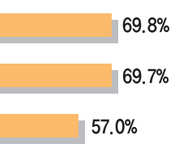
알바생 절반 "늘 서서 일한다"

29일 알바몬이 알바생 3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2%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 역시 31.0%로 많았다. 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서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12.2%, 업무 특성상 대부분 앉아서 근무하는 알바생은 6.3%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택배 등 운반/물류(69.8%), 백화점/마트(69.7%) 알바가 '항상 서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았다. 늘 서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감하는 근무강도와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아르바이트



● 업종별 순 (항상 서서 근무)



편집 | 이수진 기자

아이파크몰, 서울 용산에 '애니메이션 왕국' 세운다

추억 속 애니 만날 '팝콘D스퀘어' 오픈

서울 용산 현대아이파크몰은 대원미디어와 손잡고 2월10일 6층 리빙파크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팝콘D스퀘어'를 오픈한다. 만화 속 마을을 모티브로 전시장, 소극장, 캐릭터MD숍, 만화테마거리 등 3300m² 공간을 애니메이션 세상으로 꾸민다.

애니메이션 전시관에서는 오픈 첫 기획전으로 '세계명작극장전, 빨강머리 앤, 파트라슈 그리고 40년의 추억'을 진행한다. 또 만화테마거리에서는 동화 속 마을 같은 분위기와 함께 카페 및 먹거리 등 시청각과 미각이 어우러진 오감 체험 공간이 연중 펼쳐질 예정.

양창훈 현대아이파크몰 대표는 "현실에서 애니메이션 왕국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인들이 하이트와 참이슬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유럽서 판매 급증

작년 22만 상자 판매… 전년비 60% 성장

맥주 본고장 유럽에서 한국 맥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맥주 판매량 22만 상자를 기록,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판매 규모는 2배로 늘었다.

특히 하이트진로 법인이 있는 러시아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이트진로는 러시아 주류판매 허가를 취득한 2014년부터 현지인 시장에 진출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트와 함께 흑맥주 스타우트도 인기여서 러시아에서 지난해 17만 상자를 판매해 전년 대비 93% 성장했다. 최근 한식이 유럽인들로부터 건강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맥주 판매량 증가의 원동력이다. 하이트진로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국가별 대도시 상권에 있는 한식당을 중심으로 시음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상무는 "올해 안에 런던에 팝업스토어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넥슨 모바일게임 신작 '야생의땅: 듀랑고'. 사진제공 | 넥슨

넥슨 게임 신작들 나란히 흥행 '승승장구'

'듀랑고' 접속오류 악재 회복 후 상승세
PC온라인게임 '천애명월도' 인기 10위

25일 출시한 넥슨의 신작들이 순항하고 있다. 먼저 출시 초반 '대규모 접속 장애'라는 악재로 고생했던 모바일게임 '야생의땅: 듀랑고'(이하 '듀랑고')가 조금씩 시스템이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흥행 청신호를 켜고 있다. '듀랑고'는 29일 기준 구글플레이에서 매출 순위 5위에 올랐고 앱스토어에선 3위를 기록했다. 인기 순위는 양대 마켓 모두 1위에 올랐다.

◀천애명월도

'듀랑고'는 공룡 세계에서 야생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기존에 없던 세계관과 플레이 방식을 도입해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5일 출시 당일 많은 유저들이 접속 오류를 겪으며 큰 불만을 샀다. 넥슨은 주말동안 서버를 늘리는 등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접속지연으로 인한 불만이 여전히 일부 남아있지만, 게임의 재미에 대한 유저들의 입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듀랑고는 접속장애에도 불구하고 주간 게임사용시간 1위를 기록했다.

25일 공개서비스를 시작한 PC온라인게임 '천애명월도'도 인기를 끌며 이렇다할 대작이 없었던 PC MMORPG 시장에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PC방 분석 사이트 게임트릭스 기준으로 28일 인기 순위 10위에 올랐다. '천애명월도'는 텐센트 산하 오로라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MMORPG로 고룡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실사를 방불케 하는 고품질 그래픽 및 사실적 액션이 특징이다.

넥슨은 무협과 MMORPG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그랜드코리아레저, 평창올림픽에 30억원 기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직무대행 윤남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0억원을 기부(사진)했다.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부 협약식에서 윤남순 GKL 사장직무대행은 "평창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에 앞장섰다"며 "이번 국가대표로 출전한 GKL 모굴스키팀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GKL은 이번 기부금 외에 지난해 12월에는 소외계층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을 위해 경기관람권 260매를 구매해 강남구 수서명화복지원에 전달했다.

한화리조트, 나고야항진흥재단과 학술 교류회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는 24일과 25일, 일본 나고야항진흥재단과 '제1회 학술교류회'(사진)를 진행했다. 지난해 양측이 체결한 MOU의 일환으로 진행한 학술 행사로 수족관 전시·교육 프로그램 및 사육생물 연구 실적을 공유해 상호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나고야항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나고야항 수족관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가 희귀 동물 번식에 공헌한 기관에 수여하는 '코가상'을 두 번 수상했다. 1995년 세계 최초로 붉은바다거북의 실내 번식에 성공했고, 이후 현재까지 9000마리가 넘는 아기 거북이가 탄생했을 정도로 수족관 사육과 번식에 관해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